

2026년 7월의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의열투쟁의 첫 신호탄과 마지막 불꽃, 박재혁 의거와 부민관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은 격렬한 투쟁의 역사였다. 무장투쟁인 의병전쟁으로 시작되어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전쟁을 거쳐 1920년대 독립전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1930~40년대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졌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은 무장투쟁은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을 꽃피운 자양분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의열투쟁은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열투쟁은 일본 동경의 이봉창 의거, 중국 상해의 윤봉길 의거 등 국외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의열투쟁의 주요 무대는 국내였다. “마땅히 파괴해야 할 대상”인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등 식민통치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기관·시설물과 총독, 친일파 거두, 밀정 등이 주로 국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적지로는 국내 의열투쟁의 첫 신호탄이 된 박재혁 의거지(옛 부산경찰서 터)와 해방 20일 전 마지막 불꽃으로 타오른 경성부민관 폭탄의거지를 들 수 있다.

박재혁 의거지인 부산경찰서는 1905년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서로 건축된 신청사였다. 2층의 서구식 목조 건물로 외벽은 널빤지를 포개어 이어붙인 비늘판 붙이기로 꾸며 놓았고, 서구식 창문에 지붕은 일본식 팔작 지붕이었다. 1906년 부산이사청 경찰서, 1907년 부산경찰서로 개칭되었고 1924년 6월 현 부산중부경찰서 위치인 중구 영주동으로 이전하였다. 부산 용두산 공원 아래 옛 일본영사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바로 오른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현재는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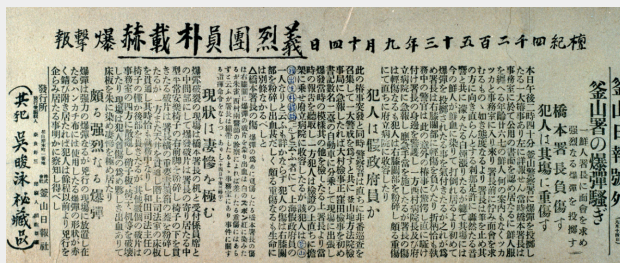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인 1920년 9월 14일, 바로 이곳에서 의열단 단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장을 처단했다. 국내 의열 거사의 첫 성공이었다. 부산 출신 박재혁은 1920년 4월경 상해에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했다. 같은 해 8월 거사 지시와 함께 폭탄 1개, 군자금 300원, 여비 50원을 받고 상해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9월 7일경 부산에 들어왔다.



▲박재혁 의거지 - 옛 부산경찰서 터 전경과 항공사진

부산경찰서 폭파 계획을 세운 박재혁은 경찰서장이 중국 고서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서적상으로 위장하여 부산경찰서를 찾아가 서장 면회를 청하였다. 서장실에서 하시모토(橋本)서장과 마주앉은 박재혁은 보자기를 끌러 펴는 척하다 폭탄을 꺼내어 안전장치를 풀고, 독립투사를 잡아 괴롭힌 죄를 유창한 일본말로 꾸짖으면서 마루에 내리쳤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고 파편에 맞아 피투성이로 쓰러진 하시모토 서장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사망하였다.

우측 무릎뼈에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된 박재혁은 부산부립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후 경찰서로 끌려가 취조를 받았다. 그는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고 누구와 공모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준비,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1920년 11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형,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 같은 해 3월 31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선고되었다. 형 확정 후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재혁은 거사 당시의 부상과 조사 과정의 고문으로 인한 상처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면회 온 친구에게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다”고 태연히 말하였다. 그리고 5월 5일 재면회 때 그는 “왜놈 손에 사형당하기 싫어 단식 중”이라 하였지만 결국 5월 11일에 옥중 순국하였다.



▲부산일보 호외(1920.9.14.) - 의열단 박재혁 의거



▲ 옛 부산경찰서 전경



▲ 박재혁 의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는 '부민관 폭파 의거 터'라는 표지석이 있다. 부민관은 1935년 세워진 경성부립극장으로 강당과 회의실 등을 갖춘 최신 다목적 회관이었다. 해방을 3주 정도 앞둔 1945년 7월 24일, 이곳 부민관에서 친일부역자 박춘금 일당이 한국인들을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개최한 '아시아민족분격대회' 행사장에 유만수, 강윤국, 조문기 세 청년이 폭탄을 터뜨렸다. '부민관 폭파 의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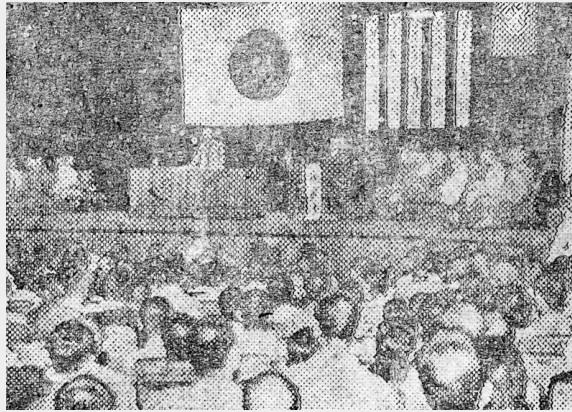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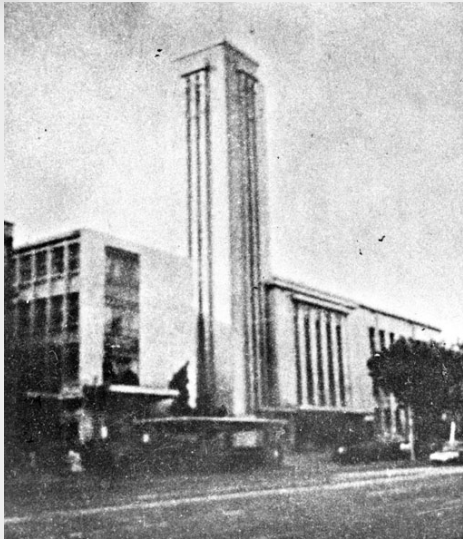
▲부민관 폭파의거지인 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이를 주도했던 조문기는 1942년 이래 일본 동경의 일본강관주식회사에서 훈련생으로 일하던 중 유만수·강윤국과 함께 친일파 박춘금 일파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조문기·유만수·강윤국은 1945년 1월에 귀국한 후, 우동학·권준·박호명 등과 함께 1945년 5월 비밀결사인 대한애국청년당(大韓愛國靑年黨)을 결성했다, 임시의장은 연장자인 유만수가 맡았다.



▲ 부민관 폭파사건 주역들
- 강윤국, 조문기, 유만수

이들은 곧바로 거사계획을 세우고 대표적 친일인사와 조선총독부 인사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결의했다. 그중에서도 1930년대 일본 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태평양전쟁 말기 필승 체제 확립과 내선일체 촉진을 위해 설립된 야마토동맹[大和同盟]의 이사인 박춘금이 1순위로 결정되었다. 박춘금은 1945년 6월 이성근·김동환·고원훈·손영목 등 친일인사들과 함께 부민관에서 대의당(大義黨)을 결성했다. 대의당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신·일가(一身·一家)의 소의(小義)를 포기하고 진충애국(盡忠愛國)의 대의(大義)에 살자는 취지로 창립된 단체로 연합국의 최종 공세에 맞서 육탄으로 '황국'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등 친일적 성격이 아주 짙은 단체였다.



▲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

◀ 당시 부민관 전경

7월 24일 서울 부민관에서 '아시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한다는 대의당의 광고를 보고 조문기·유만수·강윤국은 이 대회장 폭파를 계획하였다. 우선 거사에 사용할 무기를 확보해야 했다. 유만수는 수색 변전소 작업장에 인부로 잠입해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 확보하고 2개의 사제 시한폭탄을 완성했다. 강윤국은 헌병으로부터 권총을 빼돌렸다.

당일 부민관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동원되었고, 단상에는 총독부 고관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앉아 있었다. 매일신보사 사장 이성근의 개회사에 이어 일본 육해군 장병에 대한 감사문과 연설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조문기와 유만수는 일반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박춘금의 등장에 맞춰 단상 아래 계단과 무대 밑에 폭탄을 설치했다. 3분 뒤 대폭발과 함께 대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의당 당수 박춘금은 자비로 현상금 5만 원을 내걸었고 일제는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해방 직전 서울의 심장부에서 거행된 친일행각을 폭탄 의거로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일제에 심리적·정치적 타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아세아 민족의 흥분은 바로 우리가 폭발시킨 것이다"라는 조문기의 고백처럼 국내 민중들에게는 다가올 해방과 함께 항일운동세력의 투쟁이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